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5.(목) 14:00 배포 2026. 11. 5.(목)

라이즈 아시아 이니셔티브, 민관 손잡고 아시아 에너지 안보 새 판 짠다

- 기후부 제2차관 주재로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국내 민간 전문가 및 학계 정책 간담회' 개최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추진 중인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 구상의 핵심 과제 및 민관 협력 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5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학계, 연구기관, 산업·금융계, 시민사회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국내 민간 전문가 및 학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RISE ASIA (Resilient & Integrated Strategy for Energy Security in ASIA): 전통적 에너지·자원 수급, 전력시스템 안정성 등을 통합 진단하여 아시아 에너지 위기대응 역량과 회복탄력적 전력시스템 강화를 지원하는 협력 구상(9.17 한-IEA MOU 체결 계기 본격 주진)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에 발표된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의 추진 방향을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구상의 이행 과정에서 국내 연구기관, 기업, 금융기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면담 직후 국제에너지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구상(RISE ASIA)'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력 구상은 지정학적 불안정 등으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확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배경에서 출범했다.

‘라이즈 아시아’는 ① 에너지 위험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 ② 미래성장을 위한 전기화 협력, ③ 개방적·포용적 에너지 정책대화를 3대 협력축으로 하며, 아시아 지역의 회복탄력적인 에너지 협력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 안보의 초점이 화석연료의 안정적 확보에서 전력공급 안정성, 청정에너지 공급망, 기후회복력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한편, 청정전기화 협력 등 핵심 협력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가 ‘라이즈 아시아’의 추진 방향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과 정부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에너지기구와 함께 추진 과제와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 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라이즈 아시아 국내 민간 전문가 및 학계 정책 간담회 개요.
2.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이준협 (044-201-660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라이즈 아시아 국내 민간 전문가 및 학계 정책 간담회 개요**

1. 배 경

□ 한국의 정책·산업화 실행 역량과 IEA의 데이터 분석·정책 자문 역량 및 네트워크를 결합해 아시아 **新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RISE ASIA'** 추진

○ 'RISE ASIA' IEA MOU 체결 후속 조치로 **아시아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구상**의 **국내 산업·금융계와의 공유 및** 민관 협력 필요

⇒ 이에, RISE ASIA **취지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차관 주재 **간담회** 개최

2. 개요

□ **(일시/장소) '26년 11월 5일(목) 14:00 /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 **(참석대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관련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전문가

□ **(주요 논의내용)** 아시아 에너지 전환의 주요 정책과제 및 이행방안과 민관 협력 추진 방식 및 주체별 역할에 대한 논의

○ **(이행 방안)** 이행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및 우선 협력 사업** 도출 및 사업 이행에 필요한 **역량·자원의 효과적 지원 및 연계** 방안 모색

○ **(협력 체계)** 선정 사업의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추진 방식**과 주체별 전문성 기반 **역할 분담** 및 협력·논의를 위한 **후속 이행 거버넌스** 마련

3.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말씀**	제2차관
14:05-14:15	('10)	**RISE ASIA 취지 및 중장기 비전 공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림 실장
14:15-15:25	('70)	**자유토의** - **주제①** RISE ASIA 이행을 위한 추진 과제 - **주제②** 민관·국제협력 추진 방식과 역할 분담	사회자: 최한창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참석자 전원
15:25-15:30	('5)	**폐회사 및 마무리**	제2차관

붙임 2 **회복탄력적 · 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 개요**

1. 추진 배경

□ 최근 중동 상황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 재확인**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LNG**의 약 90%가 아시아로 향하는 등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 존재, **역내 비축·위기대응 역량 편차** 및 **정보공유 체계 미흡**

□ 중동 상황으로 **수입화석연료 의존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에너지 안보 범위**가 **안정적 전력공급·청정전기화·기후회복력** 등으로 **확대**

○ **미래산업** 확대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例>메가프로젝트), **안정적·유연한 전력시스템 확보**가 **산업경쟁력,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각

⇒ 한국의 정책·산업화 실행 역량과 IEA의 데이터 분석·정책 자문 역량 및 네트워크를 결합해 아시아 **新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RISE ASIA*'** 추진

* **R**esilient & **I**ntegrated **S**trategy for **E**nergy Security in **ASIA** : Energy Security 2.0 for the Electrified Future

2. RISE ASIA 비전 및 3대 협력축

□ **(비전) 지정학 리스크·전기화 시대**의 **회복탄력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아시아 성장기반** 마련

○ (협력축①**에너지 위험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 전통적 에너지(원유·LNG 등) 수급,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력공급 안정성을 **통합 진단·모니터링**하고, **정보공유·조기경보·공동비축**과 연계하는 **아시아 에너지 위기 공동대응 체계** 구축

○ (협력축②**미래성장을 위한 전기화 협력**) **안정적 청정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전력 수요의 확대 및 전력시장·계통운영 제도 개선의 통합적 추진

○ (협력축③**개방적·포용적인 에너지 정책대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 접근성 포함 **포용적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개방형 정책협의 플랫폼** 운영